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헤드라인뉴스 택시 등 모든 교통네트워크, 정크푸드 광고 '퇴출'

문화·관광 문학·도시 연결하는 '프로젝트 북마크 캐나다'

사회·복지 노인·장애인위원회 신설...학대신고 수사권도 부여
주거지원 위주 장기대책으로 노숙자 61% 감소

행정·교육 포용·통합 중시하는 '세계 스포츠 수도' 목표

도시계획·주택 문화재구역 등 지역특성 고려한 광고물 관리조례
지하공간 장점 살려 에너지·물류·방재시설 등 구축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케이프타운	김소망	시애틀	강민규	오사카	권용수
암스테르담	장한빛	시카고	김영준	베이징	박성은
베를린	신희완	스톡홀름	문선우	상하이	문혜정
	유진경		허윤희	에드먼턴	장지훈
	홍남명	바르셀로나	진광선	토론토	고한나
뉴욕	윤규근	런던	오도영		김용훈
	이수진	버밍엄	정기성	보르도	김준광
	이정근	피렌체	김예름	파리	배세진
	정수지	자카르타	박재현	시드니	정용문
로스앤젤레스	최윤경	도쿄	박재호		
샌프란시스코	김민희		이용원		

택시 등 모든 교통네트워크, 정크푸드 광고 ‘퇴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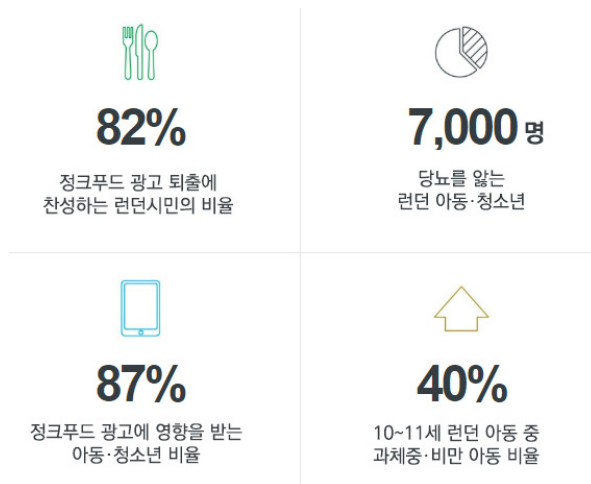
市교통공사, 아동비만 퇴치 목적...시민 82% 지지

영국 런던市 / 행재정·교육

영국 런던市 교통공사(Transport for London)는 아동비만 감소를 목적으로 오는 2월 말부터 대중교통과 택시 등 산하 모든 교통네트워크에서 정크푸드 광고를 퇴출하기로 결정함. 런던시 민도 아동비만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82%가 이 정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

배경: 아동비만 문제와 정크푸드 광고

- 런던 거주 10~11세 어린이의 약 40%가 과체중이거나 비만
 - 아동·청소년기 비만은 성인비만으로 이어지기 쉬워 시민건강에 악영향 우려
 - 어린이 식습관과 급식 관련 문제가 꾸준히 제기
- 정크푸드 광고를 본 아동·청소년의 87%는 실제 정크푸드 구매 확률이 3배 높아
 - 매일 TV·인터넷·옥외광고 등에서 정크푸드 광고에 노출되는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이에 견줘 비만 확률이 2배 이상
- 시민 82% 정크푸드 광고 퇴출 찬성, 아동비만 경각심 큰 상황
 - 지난해 5월 열린 공공협의회에서 아동비만을 유발하는 정크푸드 광고 퇴출에 찬성 하는 시민의 비율이 약 82%로 확인



[그림 1] 런던 아동비만 현황

- 시민단체와 유명인 등이 아동비만 퇴치 운동 적극 전개하고, 시정부도 지원
 - 비영리단체 ‘푸드 파운데이션’(Food Foundation)은 건강한 식습관과 채식 장려 운동인 ‘Veg Pover’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시정부가 지속 지원
 - 영국 유명 셰프 제이미 올리버(Jamie Oliver)와 휴 펀리-윙팅스톨(Hugh Fearnely-Whittingstall)도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미디어와 현장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시정부도 직간접적 지원 제공

주요 내용

- 런던교통공사가 소유·관리하는 모든 시설에서 정크푸드 광고 퇴출
 - 런던교통공사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모든 교통네트워크에 적용
 - 지하철, 철도, 택시, 장애인 콜택시(Dial a Ride), 버스, 트램, 강변 서비스 시설, 에미레이트 항공(Emirate Air Line) 등
 - 해당 시설에 고열량·고염분·고당 식품, 무알콜 음료 등의 정크푸드 광고 금지
 - 정크푸드 예시로는 고당분 음료, 치즈버거, 초콜릿 바, 짬 건과류 등을 제시
 - 직접적인 정크푸드 이미지가 없어도, 해당 정크푸드 소비를 자극·유발할 수 있는 간접 광고도 금지
 - 아동비만에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는 정크푸드는 런던교통공사의 심의를 거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무염 건과류, 무가당 음료의 광고도 허용
 - 2019년 2월 25일부터 실행

<https://www.london.gov.uk/what-we-do/business-and-economy/food/tfl-junk-food-ads-ban-will-tackle-child-obesity>

<https://tfl.gov.uk/info-for/business-and-commercial/commercial-media>

정 기 성 통신원, jkseong71147@gmail.com

문학·도시 연결하는 ‘프로젝트 북마크 캐나다’

캐나다 토론토市 외 / 문화·관광

‘프로젝트 북마크 캐나다’는 문학작품과 그 배경이 되는 도시를 연결하는 전시 프로젝트로, 작품의 배경으로 사용된 실제 장소에 작품과 작가를 소개하는 패널을 설치함. 이는 문학경험의 새로운 장을 여는 한편, 도시의 브랜드화에도 이바지해 많은 지자체에서 호응과 지원을 받음

‘프로젝트 북마크 캐나다’ 개요

- 캐나다 문학의 실제 배경이 된 장소에 작품과 작가의 이야기를 설치하는 프로젝트
 - 캐나다 전역을 캐나다의 문학으로 연결하는 세계 유일의 전시 프로젝트
 - 문학 속 이야기를 실제 장소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함
 - 2009년 토론토를 시작으로 밴쿠버, 킹스턴(Kingston), 위니펙(Winnipeg) 등 캐나다 전역 23개 도시에 해당 장소와 연관된 문학작품을 소개
- 문학작품 속 글귀와 작가 설명을 담은 패널을 작품 속에 언급된 지역에 설치
 - 캐나다의 실제 지역을 배경으로 쓴 대표적 문학작품을 선정
 - 작품 속에서 500단어 내의 문구를 발췌해 작가의 기록과 함께 전시
 - 포스터 크기의 알루미늄 패널을 영어와 불어의 2가지 버전으로 제작
 - 작품이 묘사하고 있는 정확한 위치를 찾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 이야기 속에 쉽게 몰입할 수 있으며, 실제와 상상이 일치하는 새로운 문학적 경험을 할 수 있음
 - 프로젝트 로고인 파란색 ‘B’를 패널 왼쪽 상단에 삽입해 식별을 도움
- 동명의 자선단체가 정부·자원봉사자 등과 협력해 추진
 - 작가 미란다 힐(Miranda Hill)의 주도로 2007년 설립
 - 캐나다 주정부·지방정부와 협력해 진행하며, 캐나다를 기념하는 특별한 작품은 캐나다 문화유산사업에서 별도로 재정지원
 - 많은 자원봉사자와 기부자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풀뿌리 운동
 - 자원봉사자는 대상 문학의 탐구, 설치 지역 주변의 지리조사, 설치 후의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협력 제공
 - 개인·기업 등이 직접 주최자 역할을 하는 사례도 있음

사례 1: 토론토

- 토론토 블루어(Bloor) 거리의 바이덕트(Viaduct) 다리 옆에 설치
 - 대상 작품은 이민 노동자의 삶과 좌절을 표현한 『사자 가죽을 입고』(In the Skin of a Lion)
 - 프로젝트 북마크 캐나다에서 처음 설치한 패널
- 자살다리로 유명했던 장소에 이민자의 애환을 담은 문학을 소개
 - 바이덕트 다리는 1918년 대량수송을 목적으로 건설되었으며, 2003년 그물망을 설치하기 전까지 북미에서 손꼽히는 자살다리였다는 비극적 과거가 있음
 - 작가 마이클 온다체(Michael Ondaatje)는 이 작품으로 공식 역사로는 알기 어려웠던 1910년대 토론토 이민노동자의 생활상과 비극을 표현
 - 이민노동자를 통해 시대를 이야기하고자 했던 작가의 문학적 의도를 느끼기 좋은 장소를 선정



[그림 1] 토론토 제막식에 참석한 작가와 북마크 패널

사례 2: 핼리팩스

- 19번째 북마크 지역으로 핼리팩스(Halifax)시(市) 도심 속 성채(Citadel)가 선정
 - 대상 작품은 20세기 캐나다 대표 문학가 휴 맥레넌(Hugh MacLennan)이 전쟁의 공포를 다룬 『바로미터 라이징』(Barometer Rising)
- 전쟁의 공포와 대서양의 아름다움이 대비되는 글과 장소
 - 영국 식민지 시절 도시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쌓은 별 모양의 요새는 국가 문화 유적지로 19세기 캐나다인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장소
 - 1917년 전쟁의 공포를 다루면서 성채에서 바라본 대서양의 아름다움을 대치시키는 구절은 100년이 지난 이야기이지만, 작가가 표현한 시간과 장소를 읽는 이에게도 똑같이 경험시키는 힘이 있음



[그림 2] 헬리팩스 성체에 설치된 북마크와 1917년 당시의 모습

성과와 시사점

- 지자체는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알릴 중요한 기회로 인식하고 지원
 - 킹스톤, 위니펙, P.E.I(Prince Edward Island) 등의 도시는 이 프로젝트를 도시의 문화적 역량을 알리는 데 활용하고, 관광객 유입으로 연결되도록 노력
 - 지역공동체의 문화유산 창출, 독서문화 강화, 문학을 바탕으로 한 소통 유도 효과
- 도시의 브랜드화를 이끄는 축제로 승화
 - 매년 새롭게 추가할 패널의 지역과 작품을 선정하고, 제막식 날에는 작가를 비롯한 주요인사를 초청
 - 문학작품과 작가와 도시의 브랜드화가 이루어지는 도시의 축제가 됨
- 캐나다의 정체성에 관한 논의를 유도
 - 150년이라는 짧은 역사를 지닌 캐나다에서 ‘캐나다다움’에 관한 고민은 실재적으로 필요한 고민이며 문학은 이를 잘 드러내는 소재
 - 문학과 지역을 연결하는 시도는 그 영향력이 문학에만 머물지 않으며, 민족적 감수성을 구성하는 실재가 됨
- 문학의 역사가 깊은 한국에서도 활용할 방안이 많을 것으로 생각
 - 문학작품이 교과서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관광객의 걸음과 호흡 속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 것

<https://www.projectbookmarkcanada.ca/>

<https://static1.squarespace.com/static/51156f07e4b0cd4cc713921a/t/58bd8a11f7e0ab949c713fed/1495502188214/Project+Bookmark+Canada%27s+CanLit+Trail+%231-17+%282009+-+2016%29RS.pdf>

노인·장애인위원회 신설…학대신고 수사권도 부여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 사회·복지

노인·장애인학대 문제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온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최근 이 문제를 전담할 ‘노인·장애인위원회’를 신설하고, 학대신고 사례의 직접 수사권과 압수·수색 집행권 등 실질적 권한과 지위를 부여해 정책 실효성을 강화

배경과 목적

- 노인·장애인학대는 숨겨진 사회문제
 -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학대를 학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때가 많아 실제보다 과소 보고되는 경향
 - 학대를 인지하더라도, 권력관계나 문화적 이유 등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례 다수
 - 노인학대 피해자의 70%는 여성이고, 여성 노인의 20%가 학대를 경험
 - 가해자의 대부분(70%)은 성인 자녀이며, 남편이 가해자인 사례는 10% 정도
- 주정부는 꾸준히 노인·장애인학대 문제 해결에 노력
 - 2015년부터 ‘노인학대 신고·연구 센터’(Elder Abuse Helpline and Resource Unit)를 구축·운영
 - 센터에 접수되는 학대·방치 사례 등을 조사한 결과, 더 효과적이고 강력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 확인
 - 정부차원의 실태조사와 대응정책을 지속 추진
 - 2016년 ‘노인학대 의회보고서’ 발간과 함께 법·제도적 정비 제안
 - 2018년 ‘노인·장애인학대 및 방치 특별보고서’ 발간, 부처 간 협력을 골자로 하는 ‘노인학대 근절 정책’ 도입

주요 내용

- 노인·장애인학대를 전담할 정부기구 ‘노인·장애인위원회’ 신설
 -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학대사례 대응과 사후지원, 학대 예방사업, 관련 인력 교육 등 수행
 - 경찰청 산하에 신설되는 ‘노인학대 특별 전담반’과 긴밀히 협력
 - 2019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업무 수행

- 노인·장애인위원회에 독립적이고 강력한 권한 부여
 - 학대·방치·착취 신고사례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필요시 수색영장 집행과 증거압수 권한도 부여
 - 수사 결과에 따라 피해자와 그 가족 등에게 지원 제공
 -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다른 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권한도 보유
- 근거법인 ‘노인학대 근절 정책’은 사회적 논의에 기초한 정책적 대응의 기본틀 제시
 - 노인학대를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4가지 주요 분야별 대응정책을 설계

[표 1] 노인학대의 5가지 유형

학대 유형	내용
신체적 학대	- 고의적으로 신체적 고통이나 부상을 유발하는 행위
성적 학대	- 피해자가 원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은 성적 접촉, 강간, 성착취적 언어 사용 등
재정적 학대	- 노인의 소유재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동의 없이 관리·처분하는 행위
방치	- 의식주 등 기본육구 충족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행위 - 돌보미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 사례 등
심리적 학대	- 소외, 폭력에 대한 두려움, 박탈감, 수치심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행위 - 피해자의 사회적 관계에 제한을 가하는 행위

[표 2] 노인학대 근절 정책 분야별 대응정책

분야	주요 대응정책
예방과 조기발견	- 종사자 훈련: 노인·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학대 인식 훈련 실행 - 지역사회 인식개선: 관련 기관의 지역사회 인식개선사업 실행 촉구와 연간보고서 의무화 - 위험요인과 대응책 이해 강화: 학대 관련 데이터 구축과 모니터링 방안 마련
학대 경험자 지원 강화	- ‘노인학대 신고·연구 센터’ 역할 강화: 기존 정보제공, 상담·조언, 위탁 등의 업무와 함께 지역사회 인식개선과 교육 사업, 경찰이나 돌보미 등 일선 종사자 훈련 기능 강화 - 보건부(NSW Health), 후견청(NSW Trustee and Guardian), 가정폭력 신고센터 등 관련 서비스 기관과의 업무 연계 강화
개입과 보호	- 효과적인 실천 지침 마련과 공유: 관련 기관이 학대징후 감지, 안전진단, 지원프로그램 시행, 문제 보고와 위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실천 지침을 마련하고 교육 - 법적 개입: 학대를 범죄로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훈련을 관련 기관에 제공
집단적 대응	- 노인 담당 부처, 경찰, 복지 담당 부처, 보건부, 노인학대 신고·연구 센터 등 관련 기관 간의 일상적 협력 체제 구축 - 노인·장애인학대 관리체계 구축: 주정부 노인전략을 담당하는 ‘노인전략 범정부 위원회’에 관련 정책의 계획·실행·모니터링·보고를 담당할 기구 신설

<https://www.nsw.gov.au/your-government/the-premier/media-releases-from-the-premier/new-commissioner-to-protect-older-people-and-adults-with-disability/>
http://www.elderabusehelpline.com.au/uploads/pdf/NSW_Interagency_Policy_Abuse_of_Older_People.pdf

정용문 통신원, jungraphael@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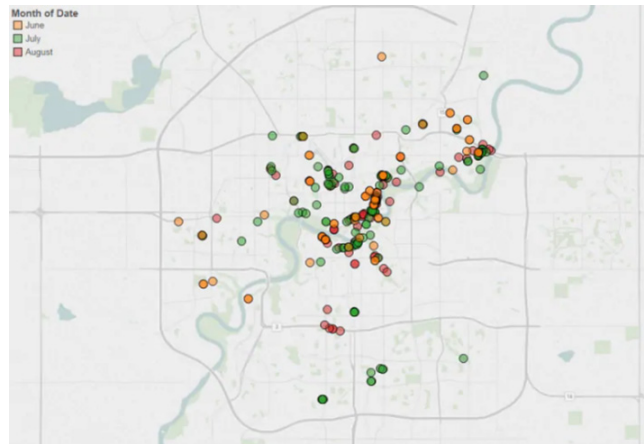
주거지원 위주 장기대책으로 노숙자 61% 감소

캐나다 에드먼턴市 / 사회·복지

캐나다 에드먼턴市는 노숙자 문제를 단기적 해결책으로 관리하기보다 주택공급 등 주거지원 위주의 장기대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해왔으며, 노숙자 분포지도 오픈데이터 활용과 대중교통 이용권 지급 등의 다각적 접근을 바탕으로 노숙자 수 61% 감소를 실현

에드먼턴 노숙자 지원프로그램

- ‘노숙의 종결’(End Homelessness) 프로그램으로 주거와 생활비 지원
 - 2008년 토론토와 캘거리에서 시작한 ‘하우징 퍼스트’(Housing First)라는 실험적 정책의 성공에 따라 2009년부터 도입
 - 미국 미네아폴리스와 뉴욕 등도 관련 정책을 시행해 성공을 거둠
 - 총 60개의 노숙자 헬프센터를 운영해 프로그램을 지원
 - 2018년부터는 서비스 대상을 성소수자까지 확대
- 시의회는 앞으로 4년간 2,500개의 저렴한 주택 건설을 계획 중
 - 916개의 영구 임대주택을 빈곤층에 제공할 계획
 - 저렴한 민간 독신자 숙소도 함께 공급 중
- 노숙자이거나 노숙자가 될 위험이 큰 사람에게 매일 대중교통 무료 이용권 제공
 - PATH(Providing Accessible Transit Here)라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교통 접근권 향상 프로젝트에서 발전
 - 취업활동, 병원내원 등의 활동을 보조할 목적으로 시작
 - 2016년 11월부터 노숙자와 취약계층 성인도 포함하도록 확대
- 노숙자 분포지도 오픈데이터 활용
 - 시는 노숙자 분포를 보여주는 오픈데이터 지도를 노숙자의 주거환경과 이동성향을 분석하는 자료로 활용
 - 분석결과 노숙자 거주지는 주요 간선도로를 따라 발견
 - 폭력, 마약 절도 등을 피하기 위해 군집장소가 아닌 고립된 장소를 찾는 성향
 - 일부는 배우자나 애완동물과 함께 있기를 원해 외곽으로 벗어나는 경향이 있지만, 외곽으로 갈수록 교통접근성·건강·약물 문제 등도 악화하기 쉬움



[그림 1] 에드먼턴시 노숙자 분포지도

성과

- 주거우선 정책으로 2008~2016년 노숙자 수 61% 감소
 - 2017년까지 1,263채의 무료 주거지를 공급했고, 2018년 현재 900명의 노숙자가 주거지를 확보
 -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민간 공급 저가 독신자 숙소는 34%(1,009채) 증가
 - 2012년 노숙자 거주지 수가 2006년 수준(1,104개소)으로 감소
- PATH 프로그램은 투자비용 1달러당 사회적 가치 1.92달러 창출
 - SROI(Social Return on Investment) 계산법으로 투자비용 대비 사회적 가치 창출 정도를 산출한 결과, 3.1개월 만에 손익분기점을 넘은 것으로 조사
- 노숙자 정책의 전반적인 효과와 만족도 높은 편
 - 노숙자의 긴급 보호시설 체류기간은 당초인 목표 7일을 넘는 29일로 나타남
 - 소속감, 지역 사회 활동 참여, 친구와의 관계 등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
 - 12개월 내 노숙 생활 재복귀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짐

여론과 개선점

- 시민의 42%는 노숙자 정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30%는 부정적으로 인식
- 시스템 통합과 후속지원 등 개선 필요 사항 존재
 - 시스템 구성 요소 간의 통합과 데이터 공유 부족(예: 위기개입, 주택우선, 예방)
 - 주거우선 지원정책의 영향에 관한 추가 데이터 필요, 주택공급 지속을 위한 후속 지원 필요

- 전반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였지만, 캐나다 원주민 노숙자 수가 여전히 많은 상황
- 빈곤과 가정폭력을 포함한 기타 우선순위 정책 어젠다와 연계하여 에드먼턴 노숙자 정책의 목표를 높이는 것이 중요

<http://endhomelessnessyeg.ca>

<https://www.edmonton.ca/ets/access-pass.aspx>

<https://www.homelesshub.ca/resource/housing-first-where-evidence>

<https://edmontonjournal.com/news/local-news/maps-show-homeless-camps-sprawled-across-city-of-edmonton>

<https://www.cbc.ca/news/canada/edmonton/950-camps-set-up-by-desperate-people-dismantled-this-year-in-edmonton-1.3825147>

<https://www.edmontoninsightcommunity.ca/S.aspx?s=606&r=Gy7Fs7yS0UJ8hf9U5Ss4JB&t=1&so=true&a=1623&as=9jF1MQ27Rm&fromdetect=1>

City of Edmonton, 2017, "EDMONTON'S UPDATED PLAN TO PREVENT AND END HOMELESSNESS"

장 지 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

포용·통합 중시하는 ‘세계 스포츠 수도’ 목표

영국 런던市 / 행정장·교육

영국 런던市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Sport for All of Us)라는 이름의 스포츠 비전을 수립해 사회적 포용과 통합을 강조한 스포츠 정책을 펼칠 계획임. 또한, 세계적 스포츠 수도의 입지를 강화해 국제적 스포츠 행사가 도시의 경제적·사회적 이익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선언

개요

- 런던시 ‘모두를 위한 스포츠’ 비전 리포트 발표
 - 런던을 세계 스포츠 수도로 자리매김하고, 스포츠를 이용한 사회적 포용을 추구한다는 2가지 목적 제시
 - ‘스포츠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고, 그들의 삶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신념에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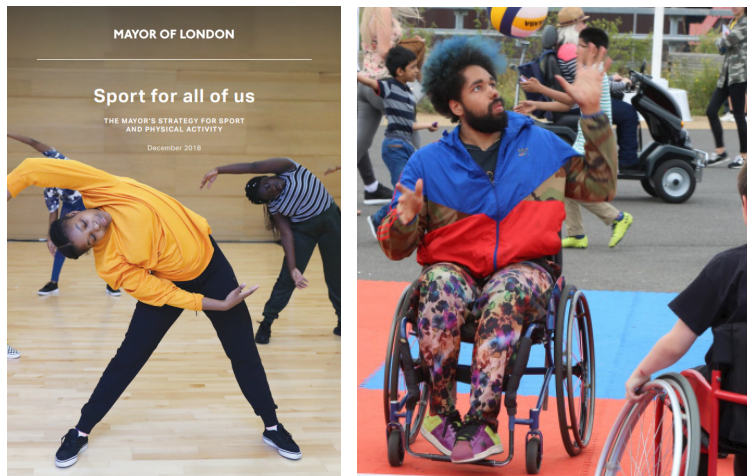
세계 스포츠 수도 런던의 입지 강화

- 세계적 스포츠 행사 개최 도시의 입지를 굳건히 하는 것이 우선 목표
 - 2012년 런던 올림픽을 비롯해 많은 세계적 스포츠 행사를 개최한 역사
 - 2015년 럭비 유니온 월드컵, 2017년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 개최
 - 2020년 유럽 축구 선수권대회 등 앞으로도 여러 국제 행사를 개최할 예정
- 세계적 스포츠 행사 개최는 도시의 경제적·사회적 혜택에 도움
 - 수만의 일자리와 다양한 자원봉사 기회 창출
 - 시민이 하나 되어 스포츠 이벤트를 즐기고 축하하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
- 시정부는 세계 스포츠 수도의 입지를 유지·강화하는 정책을 지속할 예정
 - 세계적 스포츠 행사를 꾸준히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
 - 시의회와 스포츠 지원 강화로 시민의 경제적·사회적 이익 극대화 지향
 - 시가 재정지원을 하는 스포츠 행사가 런던경제에 투자로 이어지는지 확인

포용과 통합을 추구하는 스포츠 정책

- 새로운 지역사회 스포츠 프로그램인 ‘Sports Unites’ 제시
 - 지역스포츠 정책의 초점을 ‘참여’에서 ‘포용과 통합’으로 전환
 - 1,180만 파운드(168억 5천만 원)의 재정을 마련해 3가지 주제에 투자

- 첫 번째 주제는 ‘사회적 통합’(Sport for Social Integration)
 - 스포츠 조직과 비스포츠 조직 간의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기금을 마련해 사회적 통합을 유도
 -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웃, 장애인과 함께하는 스포츠 활동 지원 강화
- 두 번째 주제는 ‘활동적인 런던 시민’(Active Londoners)
 - 시민과 지역공동체에 더 많은 신체활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집중하고 투자를 확대
 - 저소득층이 저렴한 가격에 스포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 평소 활동량이 부족한 시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 프로그램 개발·장려
- 세 번째 주제는 ‘인력·기술력·역량 개발’(Workforce, Tech&Capacity Building)
 - ‘Sport Unites’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
 - 지역사회 스포츠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능력있는 스포츠인과 스포츠 지도자를 인정하고 지원을 강화
 - 스포츠 분야 기술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인력 교육에 집중
 - 실용적 스포츠용품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아이디어가 시제품 제작으로 쉽게 이어지도록 시와 민간의 공동투자를 유치



[그림 1] 런던 스포츠 비전 리포트 표지와 관련 이미지

<https://www.london.gov.uk/what-we-do/sports/mayors-vision-sport-london#acc-i-55416>

<https://www.london.gov.uk/sites/default/files/sport-for-all-of-us.pdf>

정 기 성 통신원, jkseong71147@gmail.com

문화재구역 등 지역특성 고려한 광고물 관리조례

프랑스 보르도市 / 도시계획·주택

프랑스 보르도市는 도시 전 구역을 특성별로 세분화해 그에 맞는 옥외광고물 관리조례를 시행 중임. 문화재구역은 건축물과의 심미적 조화를 중시하고, 지상경전철 주변구역은 건축물의 전면부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는 등 광고물의 형태가 아닌 지역의 맥락을 고려해 관리

개요

- 시내 모든 구간을 특성별로 세분화해 맞춤형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시행
 - 지역의 특성과 맥락을 고려해 문화재구역, 지상경전철 주변구역, 주거지역, 주요 대로변 등으로 관리구역을 구분
- 문화재구역은 건축물과의 심미적 조화 중시
 - 모든 옥외광고물이 건축물의 건축언어와 어우러져야 함
 - 설치 장소가 제한적이고, 허용 면적도 벽면 설치 시 1㎡ 이하로 좁은 편
 - 지붕·옥상 설치 금지, 옥외 디지털화면 금지
- 지상경전철 주변구역은 파사드(건축물 전면부) 경관을 주로 고려
 - 개별 상점의 간판 면적이 해당 상점 파사드 면적의 15%를 넘을 수 없음
 - 상점의 면적이 50㎡ 이하일 때는 간판 면적의 비율을 25%까지 조정 가능
 - 옥외 디지털화면은 허용하지만, 면적 2㎡ 높이 4.5m 이하로 제한



[그림 1] 보르도 시내 상점 간판 모습

- 주거지역은 외곽지역과 도심지를 구분해서 관리
 - 외곽지역은 옥외 디지털화면 사용을 금지하고, 도심지는 면적 2㎡ 이하만 허용
 - 상점 간판의 면적 제한은 지상경전철 주변구역과 동일
 - 벽면에 설치하는 옥외광고물은 25cm 이상 돌출할 수 없고, 창문 등 개구부를 가리지 않아야 함
- 주요 대로변은 옥상·지붕의 옥외광고물 설치가 허용
 - 주요 대로변은 유일하게 옥상·지붕의 옥외광고물 설치가 허용되지만, 도로관리 규정도 함께 준수해야 하는 구역
 - 옥외 디지털화면은 도심지역에서만 허용하고, 도심외 지역은 설치 불허
- 문화부 선정 문화공간으로 등록된 건물은 일부 구역에서 규제 적용 제외
 - 주거지역과 주요 대로변에 있는 문화공간 등록 건물은 위 규제를 적용받지 않음

[표 1] 보르도시 구역별 옥외광고물 관리 규정

규제 항목 구역 유형	옥상·지붕	지면 설치	벽면 설치	상점 간판	옥외 디지털화면
문화재구역	금지	·높이 4.5m 이하, 면적 2㎡ 이하	·면적 1㎡ 이하 ·직각 설치는 1층 개구부 상단과 2층 창문 하단 사이에만 설치 ·평행 설치는 건물 주 출입구 상단에만 가능 ·형태와 비율이 건물과 심미적 조화 이룰 것	별도 규정 없음	금지
지상경전철 주변구역			·25cm 이상 돌출 금지 ·처마끝선 넘지 못함		
주거지역 A (외곽지역)		·높이 6.5m 이하, 면적 6㎡ 이하	·25cm 이상 돌출 금지 ·처마끝선 넘지 못함	·간판 면적이 상점 파사드 면적의 15% 이하일 것 ·상점면적 50㎡ 이하 일 때는 위 비율을 25%까지 조정 가능	금지
주거지역 B (도시형 주거 지역)			·발코니 등 돌출부 설치 시 높이 1m 이하 ·파사드 설치 시 창문 등 개구부 막지 않을 것		
주요 대로변	·높이 2m 이하, 면적 60㎡ 이하 ·고정장치가 보이지 않도록 설치 ·배경판 사용 금지	·높이 6.5m 이하, 면적 6㎡ 이하 ·거주민 수 1만 명 이상 지역은 면적 8㎡ 이하	·25cm 이상 돌출 금지 ·처마끝선 넘지 못함 ·도로관리 규정의 제한선 준수		·도심구역에 한해 높이 6.5m 이하, 면적 6㎡ 이하

시사점

- 우리나라는 옥외광고물의 형태를 중시하고, 보르도는 지역의 맥락을 고려
 - 우리나라의 옥외광고물 관련법은 ‘광고물이나 간판의 형태’를 중심으로 종류를 구분하고 법규를 제정
 - 보르도는 도시 내 각 지역의 맥락과 상황을 고려한 구역별 규제
 - 모든 형태의 옥외광고물을 지역의 맥락에 맞게 일괄적으로 제한하여 상대적으로 전체 그림을 보는 규제
 - 같은 형태와 규격의 간판이라도 주변경관에 따라 제약을 받는 정도가 다름

<http://www.bordeaux-metropole.fr/>

<http://www.bordeaux.fr/>

보르도 시내 및 보르도 광역시 옥외 간판 및 광고구조물 관련 법규(RLPI)

보르도 시내 및 보르도 광역시 옥외 간판 및 광고구조물 관련 법규제정 보고서

보르도시 건축조례(PLU)

지하공간 장점 살려 에너지·물류·방재시설 등 구축

일본 도쿄都 외 / 도시계획·주택

일본 도쿄都·고베市·삿포로市 등은 지상재해의 영향에서 비교적 안전하고, 주위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부지 활용이 가능한 지하공간의 장점을 살려 에너지·물류·방재 등의 도시 기반시설부터 스포츠·문화·상업시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 중

개요

- 지하공간의 장점은 안전성과 공간 활용성 등
 - 지하공간은 진동·소리나 지상재해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으며 불연성이 강해 안전성이 좋은 편
 - 연간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며, 주변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부지를 활용할 수 있어 공간 활용성이 우수
- 일본은 지하공간의 장점을 살려 광범위한 용도로 활용 중
 - 에너지, 교통·물류, 폐기물 처리·처분, 광산·관광 껑도, 방재·홍수조절 등 도시 기반시설과 안전시설로 활용
 - 교육, 스포츠, 문화, 사적(史跡) 관리, 연구개발 등 문화적인 용도로도 이용
- 최근에는 얇은 지하보다 안정적인 대심도 지하 활용에 주목
 - 대심도 지하는 얇은 지하에 견줘 지진피해의 위험이 낮고 소음·진동 등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은 편
 - 2000년 5월 대심도 지하의 공공목적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대심도지하사용법’) 제정 이후 대심도 지하의 활용방안이 주목받기 시작
- 도쿄 외곽순환도로와 고베 대용량 송수관은 대표적인 대심도지하사용법 적용 사례
 - 고베시는 한신·아와지 대지진(1995년) 이후 시가지를 지나는 송수관의 내진성을 높이기 위해 12.8km 구간을 지하 270m 부근에 설치하는 정비사업을 시행
 - 2007년에 사업을 인가받았으며, 2015년 말에 완공
 - 도쿄도는 건설 중인 외곽순환도로의 일부 구간을 대심도 지하를 이용하도록 설계
 - 칸에츠도(関越道)와 토메이 고속도로(東名高速)를 연결하는 16.2km 구간을 대심도 지하에 건설 중

지하공간 이용 주요 사례

- 연료비축, 발전소, 열·전기·물 공급시설 등 에너지 관련 시설
 - 지바현은 화력 발전소용 LNG저장소 9, 12호를 지하에 신설 중이며, 2019년 3월 운영을 시작할 예정
 - 지진 대비 안전성, 부지 활용성, 주변환경 등을 고려해 지하 LNG저장소 건설
- 철도·지하철, 지하주차장, 보행자 도로, 터널 등 교통·물류시설
 - 삿포로시는 주변 빌딩을 연결하는 지하 보행공간을 조성
 - 지하보도로 주변 빌딩을 연결하고 지하상가를 조성하였으며, 민간에 건축물 용적률 완화와 보조금 등의 지원 제공
 - 추운 지역에서는 겨울철 보행자 안전 확보가 중요한데, 고령자가 지하 보행공간을 이용하면 안전사고가 줄어들을 확인
 - 홋카이도 개발국은 ‘자연재해에 강한 삿포로 도심부 지하물류사회 실험’을 시작
 - ‘도시형 신물류시스템 연구회’를 신설해 지하공간을 활용한 물류시스템 구축을 연구
- 교육, 스포츠, 문화시설은 물론 연구용으로도 지하공간을 이용
 - 야마나시현립 지하도서관, 도쿄 국립국회도서관, 오사카시 중앙체육관 등 교육, 스포츠, 문화 등과 관련한 용도로도 지하공간을 사용
 - 그 밖에 심지층 연구소나 지하 무중력 실험센터와 같은 연구개발시설도 조성
- 환경·안전 관련 기반시설도 지하공간에 설치
 - 광산·관광 갱도, 청소공장, 하수처리장, 쓰레기 운송 설비와 같은 처리·처분시설, 우수저류관 등의 홍수조절 시설, 피난 시설과 같은 방재시설 등

<https://www.ena.or.jp/gec/case>

<https://www.ena.or.jp/gec/intro/whats>

<http://www.mlit.go.jp/toshi/daisindo/index.html>

http://www.mlit.go.jp/toshi/daisei/crd_daisei_tk_000014.html

<https://www.ena.or.jp/?fname=sk17-futtsukaryoku-hatsudensyo.pdf>

<https://www.ena.or.jp/GEC/nec/html/nyokai/g327kou.pdf>

<https://www.ena.or.jp/?fname=sk17-ymnctoshokan-kyoiku.pdf>

권용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

세계도시동향 제446호

발행인 서왕진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19년 1월 7일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개발과 도시 관련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으로부터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센터 출판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담당: 정연우(02-2149-1017, cyw797@si.re.kr)

